

인터넷 쇼핑몰, 책 시장의 또다른 가능성

클릭 한번으로 집까지 배달 ... 대형서점 이어 다빈치·부꾸·북몰 등

책 정보도 얻고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 인터넷에 개점, 성업 중이다. 전세계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서점은 건물임대료·인건비, 유통에 따르는 물류비 등 직·간접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용자는 서점에 가지 않고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반갑다.

이미 5.6년 전부터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한 통신판매가 이뤄졌지만 회원 중심인 데다 정보 가 목욕 정도로 빈약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40여개까지 늘어난 인터넷 서점은 좀더 편리한 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회원 개인의 취향까지 분석해 치밀한 도서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어린이책, 참고서 전문서점, 영어책 전문서점 등으로 분화해 간다. 대금의 지불방식이나 배달의 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먼저 정가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다빈치

(<http://www.davinchi.webfox.co.kr>)

98년 5월 처음 개설한 다빈치는 매주 새로 나온 책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간도서를 25% 정도의 할인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원하는 책을 고른 후 우송료를 포함한 책 대금을 지정한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이름, 수신처와 전화번호, 책이름, 입금은행 및 입금액을 적은 메일을 띄우면 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우송료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2500원, 기타 지역은 3500원, 책은 3일 안에 직접 받아볼 수 있다. 각 신문의 신간소개와 서평을 한데 모아 1주일 단위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여기에 육아·경제정보 등 주제별로 여러 책을 묶어 소개하고 할인가로 제공한다.

■ 부꾸(<http://www.bookoo.co.kr>)

격주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올리는 북리뷰와 서평 사이트·사이버 서점을 겸하고 있다. 크게 '부꾸 인터넷 북리뷰'와 '부꾸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북리뷰에는 새로 나온 책의 간단한 소개부터 저자 소개, 책 내용, 머리말 요약, 목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화제의 책, 논객기행, 학술회의 중계, 칼럼 등 책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가 담겨있고, 독자서평, 북키즈가 선택한 이 책 등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특히 인문·사회·예술·문학 분야의 책들이 많고, 할인폭은 책에 따라 5~15% 정도로 저렴하다. 온라인 입금이나 카드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2만원 이상 구매하면 우송료는 무료.

■ 북몰

(<http://www.book.mallkorea.com/bmk>)

출판사와 긴밀하게 연결해 정보를 제공하고 저렴한 값으로 책을 판매한다. 돌베개아이앤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돌베개와 길벗 두 출판사만이 회원사로 있다. 새로 나온 책은 물론,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 출판사 추천도서, 숨은 책 찾기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깊이있는 정보를 전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하고, 해당 금액을 은행의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확인 후 3~5일 지난 다음 택배나 우편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 키드북(<http://www.kid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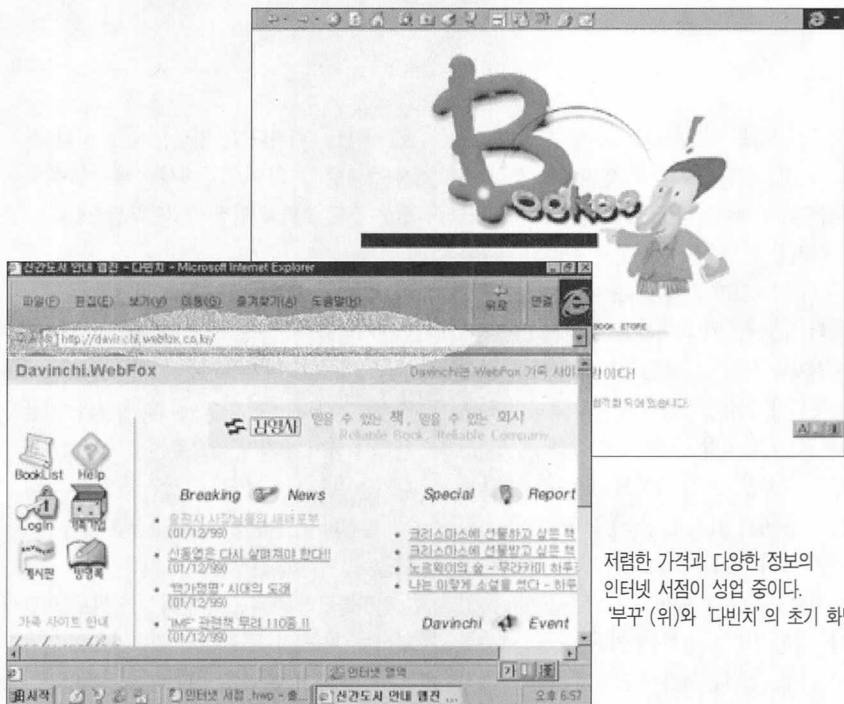
일산의 어린이전문서점 '동화나라'와 인터넷 정보서비스회사 '바우정보시스템'이 공동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서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책은 모두 1829권, 온라인과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한데 입금이 확인되면 3~4일내로 책이 배달된다.

주문액수가 1만원 미만이면 우송료 1500원을 부담해야하지만 그 이상이면 무료다. 해외에서도 주문할 수 있는데, 물론 우편요금은 따로 내야하고 지역에 따라 배달에 5~30일이 소요된다. 회원이 되면 어린이 헌책을 사고 파는 '중고도서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고 육아·어린이 독서지도 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 드림북프라자

(<http://www.dreambook.co.kr>)

육아·어린이, 학생도서, 전집류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으로 50~80%에 이르는 높은 할인율이 장점이다. 육아정보나 교육관련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정보의 인터넷 서점이 성업 중이다. '부꾸'(위)와 '다빈치'의 초기 화면.

사를 모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책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완구, 비디오구연동화 등도 구입할 수 있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인터넷 어린이서점이다.

■ 인터넷영어서점

(<http://www.interpark.com/malls/sisa>)

시사영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시사영어사에서 발행하는 도서와 일부 수입도서를 판매한다. 따로 할인을 해주지 않지만 배송료가 무료이고 살 때마다 구입가격의 0.5%를 사이버 쿠폰으로 적립해 준다. 이곳에서는 1-Pay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1-Pay 서비스는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을 은행에 입금해 놓고 사이버 캐시로 사용하는 것. 카드나 온라인, 사이버 캐시를 이용해 책 대금을 지불하면 2~7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시사영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요즘은 영한대역문고 1권 증정, 레코드점 뮤직랜드 5% 할인권 2매, ELS/YBM 수강료 5천원 할인권을 주고 있다.

■ 북스포유(<http://www.books4u.co.kr>)

북스포유가 연결하고 있는 1천여개 출판사의 책을 모두 살 수 있다. 이곳은 개별 고객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고객 맞춤서비

스를 해 주는 원투원(one to one)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다. 첫 화면에 뜨는 자기만의 방을 만들면 자신의 관심분야의 책 정보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해준다. 일반도서는 10~15%, 전문도서는 5~10%를 할인해 팔고 실적에 따라 적립금도 쌓인다.

온라인·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미리 청약금을 넣어두고 후불결제도 할 수 있다. 2만원 이상을 사면 배송비는 무료, 2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기 증빙비용 1천원만 내면 입금 후 2~5일 후에 받아볼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현금가에서 15~2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 신용카드 결제는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 북넷(<http://www.booknet.co.kr>)

한국도서보급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점으로 많은 출판사가 참여해 15만종의 책이 준비되어 있다. 70~10%까지 파격적인 할인가로 책을 공급하는데, 카드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1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할인이 안되고, 입금이 확인되면 주문 당일이나 익일에 배달해 준다. 아직 많은 서점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서점과 연결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되어 있다. 신간서적을 클릭하면 3개월 전 출간된 책부터 최신간까지 2천여권 남짓을 찾아볼 수 있다.

